

투데이 칼럼

중국 공산당 100주년

중국공산당이 7월 1일 창당 100주년을 맞았다. 중국공산당은 5·4운동의 지도자로서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의 승리 이후 공산주의자가 된 리다자오, 천두슈 등의 혁명가들이 창당했다.

1921년대의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마오쩌둥, 류샤오치, 리리싼 등의 공산당원들은 도시 노동조합의 결성을 시작했다. 1921년 7월 중국 상하이에서 13명의 대표와 50명의 당원으로 출생한 공산당은 100년이 지난 현재 약 800만 명의 당원을 가진 세계 최대 집권 정당으로 거듭났다.

1921년 공산당은 국민당과 최초로 합작하여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장제스 휘하의 국민당으로부터 대대적인 숙청을 당했다. 공산당원들은 농촌지역에서 농민들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하여 1931년 중국 남부에서 인구 1,000만 명의 중화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했다.

그러나 국민정부의 공산당 토벌작전으로 붕괴된 후 마오쩌둥과 공산당 잔류부대는 1934년부터 1935년 동안 중국 서북부로 향하는 장정의 길에 올라 산시의 연안에 정착했다.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중국 붕괴설을 비롯듯 공산당은 사회주의를 공고히 하면서 강력한 리더십을 이어가고 있다. 당원이 인구 65%에 불과한 공산당이 14억 인구를 일당체제 아래



정복규
논설위원·통일교육원

이끌어가고 있다.

첫 번째 비결로는 경제 정책에서의 실용주의가 꼽힌다. 중국은 정치적으로 사회주의를 주창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였다. 본격적인 시작은 1978년부터다.

'개혁·개방 총설계서' 명사오핑 주도로 중국 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설이 시작됐다. 상당수의 국영 기업이 문을 닫았고 주택 사유화가 시행됐으며 부자 불평이 일었다.

한편으로 공산당은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 불만을 키울 수 있는 부패에 대해선 엄중 대응했다. 공산당 정부 수립 후 최악의 부패 스캔들에 휘말린 화동자신그룹의 라이 샤오민 전 회장이 사형 선고 후 한 달도 안 돼 사형이 집행됐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3년부터 부패 척결을 내세우며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고

것도 체제 안정의 맥락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공산당 체제에 반하는 세력을 강경 억압하면서 권력을 유지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1989년 4월 벌어진 '텐안먼 사태'다. 학생과 노동자들이 베이징 텐안먼 광장에서 개혁과 민주화를 요구했다. 당국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무력으로 시위대를 진압했다.

이후 공산당은 이런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통제 교배를 조였다. 외세에 뒷받침 수요의 역사를 교육해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고취시키면서 공산당 지지를 강화했다.

관영 언론은 일당 체제를 홍보하며 이를 더욱 공고히 했다. 관영은 공산당의 이 같은 통치 방식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를 다룬다.

성장 위주 정책과 맞춤형 빈부격차 확대, 단속과 억압으로 누적인 불만이 체제

를 뒤흔드는 불안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방과의 끊임없는 충돌 속에 공산당이 가진 경쟁력의 한계가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국제기구는 여전히 자유 민주주의 서방 세계가 주도하고 있다. 중국을 최대 적으로 꼽는 미국을 중심으로 대중 경제도 심화하는 추세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통해 세계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중국몽'도 불확실해질 수밖에 없다.

시 주석의 권력 강화와 장기 집권이 체제 불안정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내 파벌 싸움 등 내부 갈등이 불안한 상황이다. 시 주석의 후계 구도가 정해지지 않아 지도 체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창당 기념일 인민복을 입고 텐안먼 광장에 오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은 심상치 않다. 그는 "중국 인민은 다른 나라를 괴롭히거나 압박하며 노예화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한반도를 침략한 한 수 당 원, 청은 중국이 아니라는 말로 들린다. 이는 동북공정보다 더한 역사 왜곡이다. 지금 중국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다. 홍콩 인권 탄압 지적에 "중안정부의 통치권을 이행하겠다"고 한 것도 문제다. 중국공산당은 국제사회에서 반중국 정서가 커지는 이유를 인식해야 한다.

기고문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그날까지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합시다!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한 지 1년 9개월째,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으로 사람들은 지쳐가고 있다. 각 국가별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조금 진전되는 듯하였으나, 각종 변이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다시금 국민들에게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일 확진자수 1,600명을 돌파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4차 유행이 시작되었다고들 말한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방역 수칙과 함께 등장한 마스크 착용이 더욱 중요하고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실내는 물론 야외활동을 하면서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마스크 일명 '코로나시대' 마스크가 생활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으니 자연스럽게 마스크에 관심이 생겨 그 어원을 찾아보았다.

라틴어 '마스카(Masca)'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마스크(Mask)는 연극을 하면서 배우들이 얼굴을 가리고 화려하게 돋보이기 위해 썼던 가면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감염성 호흡기질환 환자들에게 감염병 우려를 막기 위해 마스

크를 쓰도록 했다. 그러다가 황사문제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건강상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마스크를 생활에서 자율적으로 쓰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강요하지 않았고 순전히 개인 선택의 문제였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모두가 알다시피 나와 가족과 친구, 직장동료를 지키는 기본적인 필수 아이템이다.

현재로서는 믿기지 않지만 코로나19 이전에는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을 수천만 사람으로 보는 경향도 있었다. 은행을 가서 ATM 기계에서 돈을 찾을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은 돈을 인출할 수 없도록 설계된 기기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강경한 정책도 나왔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이 여전히 있는듯하다.

공공장소는 물론 버스타 택시를 이용할 때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마스크 승객을 승차 거부한 버스타시를 향해 폭행과 폭언을 하였다는 황당한 뉴스들이 빈번하게 나오는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



최영철
진안소방서 예방안전팀장 소방령

사회에 마스크 착용이 습관화 되지 않은 것 같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이후 대중교통 이용 중 마스크 착용 관련 시비로 입건된 경우가 50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약간의 불편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의 이기적 행동 때문이 아닐까?

나는 길을 걷다가 옆을 지나가는 청년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한 청년이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고 있는 친구에게 마스크를 올리라고 말하자 "코로나19가 걸리면 나라에서 치료를 무료로 해준대. 또 설마 코로나에 걸리면 면역을 생겨서 말도 안돼"수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

이었다.

과연 턱스크를 한 청년소의 말처럼 그럴까?

예전에 TV에서 코로나 후유증에 관한 주제를 다룬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코로나에 한번 걸리면 폐가 섬유화 되어 평생 편하게 숨을 쉴 수도 없고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진다고 한다.

이탈리아 연구진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의 약 8%가 1개 이상의 증상이 지속되는 후유증 상태, 이른바 '만성코로나'를 경험한다고 한다.

턱스크를 한 청년의 이야기처럼 코로나 확진 후 후유증 없이 면역만 생기게 된다면 온 국민이 이렇게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서둘러 진행하여 7월 중순 기준 총 150만 500명이 1차 접종을 마친 상태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백신접종이 완료된 이후에도 안전한 집단면역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마스크를 꾸준히 착용해야 한다고 한다.

우리 모두 개인적 이기주의를 넘어 국가가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코로나백신 예방접종을 정책적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그날까지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사설

북한의 특권층

절대 평등 사회라는 북한의 특권층 생활은 상상 이상이다. 주민들이 굶어죽는 가운데도 특권층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다. 평양 시내 특권층 아파트에는 쓰레기장을 지키는 경비원들까지 생겨났다.

외부 세계에서는 북한을 가리켜 평양 중심의 국가라고 부른다. 평양 사람들에게는 뇌물도 많다.

설과 같은 명절에 들어오는 뇌물의 양은 어마어마하다. 도시 내 간부들은 남한의 자녀교육 열풍과 비슷하다.

자녀의 학습지도를 위해 학교 교장과 교사들에게 뇌물을 가져다 바치며 특별교육을 부탁한다. 북한 정권은 평양과 신의주, 원산, 개성공단, 라선 등 일부 지역 외 다른 지역은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

관심을 기울일 경제적 여력도 없다. 고난의 행군 이후부터 북한 사회는 극도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남한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고급 브랜드 화장품을 평양의 일부 특권층 사이에서 유통하고 있

다.

이런 일은 밀수에 개입하면서 가능한 일이다. 최근에는 장마당으로 부를 축적한 돈주들의 돈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고층아파트를 건설하여 팔아먹는 작당이 활발하다.

북한은 외형적으로는 평등함을 추구한다. 그러나 빈부 격차는 매우 심각하다. 같은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북한에는 통일을 원하는 세력들과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다. 통일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은 특권층이다. 북한의 일부 특권층은 적화통일로서 북한이 주축이 되는 통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특권 계층, 즉 기득권 계층에 있는 고위 간부급 이상의 인물들은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자신들의 기득 권리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통일은 그들이 누리는 특권을 잃어버리는 일이다.

반면 대부분 가난한 주민들은 통일이 되어야 먹고 사는 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통일을 원할 수 있다.

전주시 도심 녹화 사업

전주시의 도시 녹화 사업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도심 녹화가 점점 뜨거워지는 도심 속 한여름 더위를 식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조례까지 개정해 옥상이나 벽면 녹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건축물의 경우 설계 때부터 옥상 녹화나 벽면 녹화 부분을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초록색 덩굴로 뒤덮여 있는 건물 벽이나 방울벽을 보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

도시 미관은 물론 실제 폭염을 식히는 데도 효과가 크다. 전주시내 어느 건물은 10여 년 전부터 도심 미관을 위해 건물 벽에 삼기 시작한 담쟁이덩굴이 일품이다. 줄기 하나하나가 10미터 넘게 자랐다.

건물은 식물을 연상케 할 정도로 온풍 초록색으로 바뀌었다. 복사열을 막아 한여름 더위를 식히는 효과까지 있다. 치유 공간으로 느낄 수 있고 휴식처 같은

느낌이 좋다.

차량 소음을 막기 위해 설치한 방음벽도 초록색 덩굴 식물이 뒤덮였다. 삭막했던 도심 미관을 개선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도시 상 기후의 원인 중 하나로 도심 열섬 현상을 꼽는다.

실제로 건물과 도로를 덮고 있는 아스팔트와 시멘트는 태양열을 흡수했다가 점차적으로 내보내며 도심 기온을 치솟게 한다.

여기에 고층 건물이 뿔뿔한 도시에 매연과 미세먼지 등으로 공기 순환이 더디지면서 열섬 현상이 심화된다. 이때 더위를 해결하기 위해 냉방기기를 강하게 작동하면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한다.

이는 다시 대기 오염과 열섬 현상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일으킨다. 옥상 녹화를 비롯해 도로변 화단 조성, 벽면 녹화 등을 통해 심미적 기능과 자연 혜택을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이상 기후도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도심 녹화 사업이 절실한 이유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노력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